

한국타이어, 일본 슈퍼GT 300 클래스 출전

한국타이어는 모터스포츠대회인 일본 슈퍼GT에 출전키로 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도쿄 셀리안타워 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회 챔피언 출신인 Endless팀과 슈퍼GT 300 클래스에 출전키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GT대회에서 2005년 우승팀인 Michelin과 Bridge Stone, 금호타이어 등 국내외 타이어기업들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한국타이어는 대회 참가를 위해 2004년부터 30억원 가량을 투자해 타이어 개발과 실전 테스트 등을 진행해 왔으며, 마른 노면용 제품인 F200과 젖은 노면용 Z207, 촉촉한 노면용 Z215 등 3종을 포르세 911모델에 장착해 출전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대회를 통해 약 100억원의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타이어 조현식 부사장은 “대회는 한국타이어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상위권 입상을 통해 한국의 레이싱 마니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3/03>